

# 1981년도 양계 관련 축산업계 10대 뉴스

南 斗 熙

(본지 편집부)

다사다난했던 1981년도를 마무리지며 본지는 지난 1년간 양계업계를 위시한 축산관련업계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10대 뉴스들을 선정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보다 나은 축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문제점이 있는 곳에는 반성을 통해 안정적인 축산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 쇠고기 가격 자율화 (가격표시제)



△ 쇠고기 가격 자율화 이후 9월부터 축협은 수입쇠고기 포장육판매를 개시하였다

정부는 지난 8월 5일 부터 쇠고기 가격 자율화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쇠고기 가격을 행정 지도가

격으로 묶어놓아 돼지고기, 닭고기 값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였었다.

78~79년 축산불황을 야기 시켰던 쇠고기 수입이 한동안 주춤하더니 올 3월부터 수입 쇠고기가 판매되기 시작하여 일반양축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우리의 전통적인 식관습으로 볼때 쇠고기 가격이 싸면 소비가 증가하고 돼지고기, 닭고기는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아 브로일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자못 크다 하겠다.

축협중앙회는 9월 1일 부터 한국냉장과 함께 전국적으로 수입쇠고기 포장육판매를 개시하여 정량판매하는 단계로 유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행정을 펴나가고 있는 마당에 물가안정을 위해 쇠고기의 과다수입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양돈·양계 양축농가에서는 쇠고기 가격이 자율화되면 쇠고기 값이 폭등하여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질 좋은 수입 쇠고기가 근당 3,000원에 소매 됨으로써 양축가의 당초 기대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닭고기의 상대적 소비위축만을 초래하였다.

양축가들이 애타게 바라던 쇠고기 가격의 자율화인 만큼 소비자는 물론 축산업계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지없다.

## 양계안정기금 조성 추진



△ 양계인의 단합으로 조직된 양계안정기금 추진위원회 회의 광경

양계 산업을 양계산업의 주인인 양계인 스스로가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양계산업의 개발 발전을 위한 양계 안정기금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류종래)가 결성되어 활발히 활동중에 있다.

양계업 발전을 활성화 하고 소비시장을 개척하여 가격안정을 기하며 꾸준한 새로운 제품개발등으로 소비확대를 계속함으로써 양계산업의 안정된 발전을 기하기 위해 안정기금과 양계산업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전담할 전담기구 등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양계업자 및 WPSA-K 등 관련 단체에 의해 모색되어져 시안이 만들

어졌다.

외국의 경우는 양계인들을 위해 정부의 법적 지원을 받아 Egg Board 시스템을 운영하며 적정수 이상의 사육농가에 일정액을 부과해 (Check off system) 소비홍보, 신제품개발, 산업개발기금으로 운영되어 양계업계 발전을 양계인 스스로가 이끌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늦긴했으나 전 양계업계의 모든 종사자가 하나의 의견으로 뭉쳐 기금확보와 기금사용 등 업계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는 금년도 가장 큰 수확이라 하겠다.

몇개월, 몇년이 아닌 장기적인 안정양계 산업을 위한 양계안정화 방안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 나가야 할 것이며 절대다수의 양계인이 스스로 가장 보편적이고 공평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생산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을 마련하여 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업계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이제 (Check off system)는 선진 자유세계 모든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정부가 권장 적극 지원하고 있어, 양계인들의 참뜻에 대한 이해와 통일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여 줄 것으로 믿는다.

## 채란업계 불황 극심

작년에 이어 금년도 채란양계업은 가장 극심한 불황을 맞았고 1980년도 사료값의 가공할만한 상승과 일반 경기위축으로 계란소비는 급격히 감퇴되었다. 2월에는 사료협회와 양계협회 공동으로 약 250만개(약 1억원 상당)의 계란을 구정을 맞는 국군장병의 위문품으로 전달 군·민 유대강화로 군사기 합양에 기여했으며 불황의 돌파구를 찾기위해 계우회연합회에서는 가두에서 계란소비 캠페인을 벌렸



△ 채란양계업계는 고질적인 불황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가두 소비홍보, 계란적자 수출 등을 시도해왔다.

고, 소비위축에 기인한 계란값 하락을 회복시키기 위해 홍콩과 중동지역에 수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널리 홍보되어 국민들에게 계란에 대한 눈길을 돌리게 해서 소비가 증가되어 5월중순부터 값이 오르는가 했더니 미처 달반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7월중순부터는 폭락하여 도로변에, 바다에, 파수원에 버리는 사태로 까지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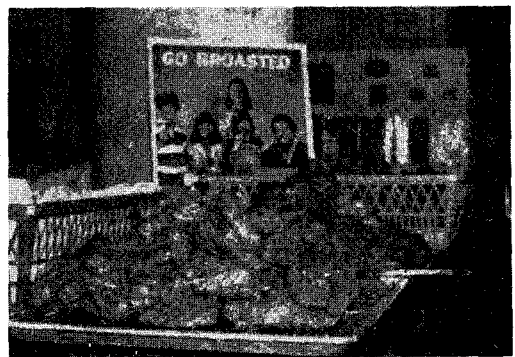
작년 11월 불황시초에 일부 단체에서 환우를 장려하는 공문을 각 양계장에 전달하는 등의 단기적이고 무계획적인 방법으로 탈불황을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더욱 어려움만을 가중시킨 바 있다. 경제성없는 노계와 환우계의 과감한 조기도태를 통해 계란값 상승은 물론 안정 채란양계 산업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려울수록 한마음으로 뭉쳐 부화장, 계란상, 생산자 등은 긴 안목을 갖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개선, 생산자조직의 강화, 유통과정의 개선, 적극적인 소비촉진 방안 강구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추석 후 부로일리가격 급락

작년도 하반기 부터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한 브로일러가격은 추석전까지 농가 판매가격이 1천원선을 율도는 좋은가격을 유지하다가 추석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 최저 550원 까지도 하락을 하였다.

작년도 센터키치킨(?) 이라는 새로운 육계튀김요리가 선보이고 부터 급격히 닭고기 소비촉진이 이루어져 금년 2월 중순을 제외하고는 추석전까지 좋은 가격을 유지해 브로일러농가는 물론 관련 부화장과 제약, 사료업체 등 활기를 머는 듯 싶었으나 추석이후 소비감퇴로 육계가격은 급하락, 많은 생산자들을 울리고 있다.



△ 브로일러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소비시장의 개척과 계열화생산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거기에서 서울시의 도계법시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용두사미식으로 엄포를 놓고는 조용히 지나가고 하는 방법에 따라 일부생계상인의 횡포로 가격은 생산비 이하로 계속 떨어졌고 정부의 축협을 통한 수매비축도 그 방법의 문제점으로 가격지지를 유도하지 못하는데다 일부 산란계 업자의 육계전업, 무계획

적인 육계생산자의 입식, 시중자금사정의 악화에 따른 소비부진 등으로 육계업계는 난항을 거듭하고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로일터업계의 불황중식은 관련업계 모두의 일사불란한 협조로 공동체의식을 갖고 계열화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축협법에 따라 중부지역 양계업 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마치고 앞으로 지방에도 양계업 협동조합이 탄생되어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를 계열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양계인의 기대가 크다.

축협은 농협, 수협과 함께 더욱 활성화 되어 축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여주시기를 양축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 축협중앙회 발족



△ 축협중앙회 현판식

축산진흥회와 농협의 관련기구의 업무를 통합한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발족되었다.

급증하는 육류소비추세에 당면해 축산물의 수급안정과, 축산의 자립기반 구축, 소득증대로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축산업협동조합법의 확정으로 축협은 1월 6일 현판식을 거행하고 그 업무에 들어갔다.

축협중앙회는 양축농가의 자율적 생산조절과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주로 중소가축에 대해 3~6개월 후의 축산경기예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축산관측사업은 물론 각종 통계업무, 사료자원의 개발, 사육기술지원, 공제사업, 여신업무 등의 실시로 양축농가의 안정과 농민소득증대에 앞장서게 되었다.

## 축산물 수급 민간협의회 발족

축산물수급원활과 가격의 안정으로 소비자 보호와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회를 위시한 축산관계 민간단체장들로 구성된 축산물수급민간협의회(회장 정태원 사협회장)가 지난 9월 21일 발족되었다.

본회와 사협, 동물약품협회, 단미사료협회, 양돈협회, 낙동비육협회 등 6개 축산관계 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축협, 농경연, 미국사료품협회, 대두협회, 정부 축산관계자 등의 관련업계가 자문위원으로 되어있는 축산물수급 민간협의회는 축산물 수급안정으로 가격



△ 축산관계 민간 단체장들로 구성된 축산물 수급 민간협의회 회의 광경

안정을 피하고 소비촉진 홍보, 축산시책진흥건의 기타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여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관과민의 다리 역할과 쇠고기수입 등 축산물 수급은 물론 업계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제까지 각 생산자 단체의 이름으로 정부와 대화하는 창구외에 전체 축산인의 이름으로 건의하는 새로운 창구가 개설되어 축산발전을 위해 同會의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章이 열릴 것을 바라 마지 않는다.

## 미국 곡물 대풍작



△ 미국 곡물의 대풍작으로 세계 사료곡물도 예상 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된다.

금년 미국의 곡물이 대풍작을 이뤄 기록적인 수확을 나타냈다.

가축사료의 거의 대부분을 도입사료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 볼 때 사료곡물 안정공급을 위해서는 무척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며 특히 옥수수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11월초 USDA(미국 농무성)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세계사료곡물 예상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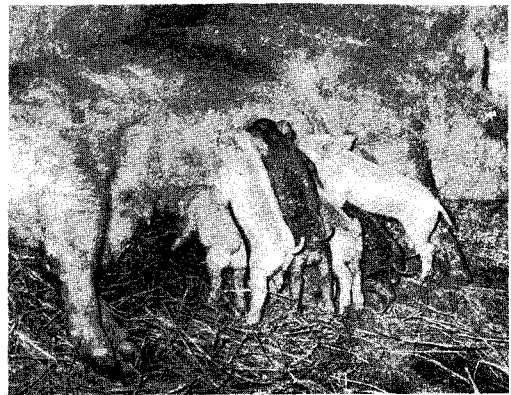
량은 전년보다 5% 증가한 7억 6천 7백 만 톤으로 이는 미국이 전년보다 24% 증가한 2억 4천 6백만 톤의 사료곡물을 수확 할 것으로 전망해 특히 옥수수는 사상 최대의 풍작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료곡물의 안정공급 뿐 아니라 가격도 떨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바람이다.

본지는 미국사료곡물협회 스톨티회장(워싱턴 사무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료곡물 수급전망을 11월호에 소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뉴스를 보도할 예정이다. 현재 옥수수 도입가격은 145 \$선이나 사료안정기금 적립을 위해 195 \$에 각 사료공장에는 공급되고 있다.

## 가축질병 예찰사업 실시

가축위생연구소(소장 이창구)는 각도가축위생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요 가축질병의 신속한 발생정보 수집으로 질병 조기색출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가축질병에 의한 양축농가의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가축질병 예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가축질병 예찰사업으로 질병의 조기색출과 대량피해를 면하게 되었다.

가축위생연구소내에 협의회를 운영 수시예찰, 지역예찰, 전국예찰을 통해 역학적 및 임상병리학적 조사, 위생관리실태 점검 및 질병발생 정보수집, 가검물 채취 및 병성감정으로 기술지도와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예찰정보를 발표, 방역 및 기술지원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전국 양축농가의 질병피해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전염성 질병의 조기예방으로 대량피해를 면하게 될 것이다.

## 한국축산학회 국제심포지움 개최



△ 한국축산학회는 가축개량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 국내외 축산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국축산발전에 선도역할을 담당해온 한국축산학회(회장 이기만)는 지난 10월 2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대만 등지의 축산관계저명학자를 초빙 가축개량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축산발전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내가축개량의 발전을 위해 개최된 국제심포지움은(준비위원장 오봉국 박사) 국내외 학자와 축산관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가축개량과 증식에 관한 시책, 국산계와 한우 및 젖소개량방안, 각국의 육종현황, 냉동정액 이

용 등에 관한 연구발표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폐막 되었다.

부업축산에서 발전해 전업화로 이제 기업축산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축산업이 세계선진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국제교류가 요청되는 시대성에 맞춰 개최된 한국축산학회의 국제심포지움은 그 성과가, 자못 괄목할만하다 하겠다.

본지는 가금육종부분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인 Shoffner 박사와 특별 인터뷰를 가져 10월호에 독자들에게 소개한 바 있다.

## EDS '76 (산란저하 중후군) 발병피해

산란계에서 산란기간(28~32주령)중 특징적인 임상증상 발현으로 채란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EDS'76(산란저하 중후군)의 발병피해로 많은 산란계 양축업자를 울렸다.

산란저하 증상, 연란 등 난각이상을 나타내는 EDS'76은 사료질의 저하와 사육환경 불량으로 난계대 전염에 의한 수직감염과 오염된 계분을 통한 수평감염으로 발병하여 경제성이 높은 산란기간중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본병의 만연을 막기위해 대한양계협회와 가축위생연구소는 3월18일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산란저하중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의 EDS'76 발병상황을 조사하고 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가축위생연구소는 이를 위해 4개 조사팀을 편성해 3월23일부터 1주일간 전국의 양계장을 지역별로 방문 조사하여 검사 및 감정을 마치고 EDS'76 백신을 수입하는 등 그 대책을 강구했하였다.

그러나 채란양계업의 장기적인 불황과 질병의 쇠퇴로 각업체에 다투어 수입한 EDS'76 백신이 거의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는 실정이다.